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인식과 실천

현혜경*

<차례>

- I. 서론: 문제인식
- II. 이론적 자원 및 연구방법
- III.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 IV.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푸드의 실천
- V. 결론

국문요약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로컬푸드의 실천과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로컬푸드는 '지역(local)'을 기반으로 하는 먹을거리 체계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재건, 식량주권, 지구환경 등 인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로컬푸드는 그 확산만큼이나 개념이나 모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부족하다. 특히 '로컬'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로컬푸드 실천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로컬푸드 실천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되는 제주 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 및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살펴보고 다층화되어 있는 로컬푸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 제주지역 생협 조합원들 사이에 로컬 및 로컬푸드에 대한 다층화된 인식과 실천이 상존하

* 전남대 사회학과 BK21 post-doc, 사회학 전공. 보다 나은 논문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로컬푸드에 대한 실제적이고 바람직한 개념이나 모델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생협), 제주도, 식재료

I. 서론: 문제인식

최근 제주사회를 비롯해 한국사회에서는 로컬푸드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의 확대는 먹을거리 위기로 불거진 식재료 안전성 문제를 시작으로 세계화에 따른 세계 식량체계 속에서 식량주권문제, 생명·환경문제, 빈곤문제, 인류 신뢰의 문제까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먹을거리 위기를 통해 그동안 누적되었던 근대사회의 모순 및 제어 없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을 일반 대중들이 각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친환경적이면서 대면적 관계를 통한 먹을거리의 확보, 즉 로컬푸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로컬푸드의 확산은 먹을거리를 대면적인 관계에 있는 지역단위에서 생산-유통-소비함으로써 직면한 인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는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에서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 세계식량자본에 대한 저항, 지구환경의 보존, 인간신뢰의 회복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로컬푸드의 관심은 처음에는 사회운동 등을 통해 시작되었으나, 몇 차례의 식품안전사고와 더불어 일어난 일반 대중의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욕구와 부합하면서 마스크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였다.¹⁾ 확산과정에서 로컬푸드는 단순히 유기농 먹을거리 혹은 신토불

이와 같은 맥락의 지역먹을거리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향에서 제철 먹을거리, 대면적 먹을거리 등 보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다층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층성은 로컬푸드운동이나 지역식량체계를 설립하려는 실천적 접근들이 우선 강조되면서 논의되지 못하였다. 특히 로컬푸드에 함축되어진 다양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천과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는 거의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선 대중들에게 확산된 로컬푸드의 인식과 실천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주지역 로컬푸드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연구 과정 속에서 다양한 층위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로컬푸드의 다양한 인식과 실천과정을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후속작업이 필요하였다.²⁾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로컬푸드 실천과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되는 제주지역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지역을 기반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³⁾ 또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다층적인 욕구가 '지역'이란 맥락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뭉뚱그려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과 모형 등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 2000년대 들어 발생했던 쓰레기 만두, 학교급식 식중독, 기생충알 김치, 멜라민 분유 등의 먹을거리 안전사고는 마스크를 통해 현재의 먹을거리 위험에 대한 경고를 대중들에게 확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 탐라문화연구소의 『탐라문화』 35호, 줄고를 참조할 것.

3) 물론 생협은 중앙집중적 유통방식이기는 하나, 생활조합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목격된다. 이 점에서 우선적으로 제주지역 생활조합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II. 이론적 자원 및 연구방법

1. 로컬푸드에 대한 이론적 모색들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로컬푸드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로컬푸드와 관련된 개념은 상당히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로컬’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 ‘로컬푸드’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이란 개념은 상대적인 특징을 띠고 있어서 작게는 정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마을에서 기초 행정단위, 광역 행정단위, 한 국가, 국가 연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이 상존해 있다가 여러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각각의 개념이 부상하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속성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호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로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로컬푸드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대개 한국사회의 실천적 과정에서 로컬푸드란 용어의 사용은 통상적으로 ‘지역산 먹을거리’, ‘제철 먹을거리’, ‘친환경 먹을거리’, ‘향토음식’, ‘전통음식’ 등으로 혼용·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로컬푸드가 지역 범위를 넘어서, 공동체, 환경, 전통 등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가미되어 다층적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추론케 한다.

이미 로컬푸드의 선구적 저자인 헬웨이(Halweil)은 로컬푸드의 등장 배경에 대해 글로벌 먹을거리체계 속에서 먹을거리 질의 하락과 그에 따른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 건강문제, 인류 신뢰 문제 등을 비롯해 전 세계 소농의 몰락과 소농의 대안으로 잠시 떠올랐던 유기농의 한계, 새로운 시장의 창출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의 작용으로 로컬푸드의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보았다(Halweil, 2006). 이 속에서 로컬푸드는 물

리적인 거리를 넘어선 사회적인 거리와 시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⁴⁾ 이는 이미 로컬푸드의 등장 과정에서 다층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로컬푸드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성'이라는 새로운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먹을거리체계와는 다른 먹을거리 시스템과 공동체를 재활성화 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미 영국과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들에서 이런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연구와 실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형태는 지역식량체계(local food system)안에서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에 대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지향 농업경영체의 한 가지 유형으로, 식량과 자연, 사회의 새로운 혼합을 만드는 새로운 영농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다(Sharp et al., 2002). 여기에는 지역사회가 지역식량체계 및 지역 경제 등에 대해 통제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이러한 연구에는 굿만(Goodman, 2002) 비롯해, 웰시(Welsh, 1997) 등 많은 연구자들이 있다.

다른 형태는 지역공동체 재활성화와 관련된다. 일본의 농촌사례 연구들은 전통적 사회시스템의 붕괴와 재편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이 경우 지역 경제의 재활성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

4) 홍경완 등도 한국사회에서 로컬푸드는 로컬푸드와 관련된 운동이나 시스템적인 접근과 실천방법 등 실용적인 면들을 강조한 것들이어서 로컬푸드라는 단일개념에 대한 정확하고 명료한 정의는 없는 실정이라고 파악했다. 홍경완 등은 기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내렸던 로컬푸드를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게 재개념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결론적으로 국내에서의 로컬푸드의 정의는 거리적인 측면, 경제적 이익, 그리고 환경적으로 유익해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홍경완 외, 2009).

5) 이에 대해서는 박덕병(2005)을 참조할 것.

에서 붕괴된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교육적 프로그램이 함께 가동된다.⁶⁾

국내에서도 로컬푸드는 지역식량체계 및 지역재활성화와 상당부분 관련된다. 김종덕(2007; 2009)은 로컬푸드를 지역식량체계에서 유통되는 먹을거리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지역식량체계는 세계식량체계와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으며, 식량의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식량체계이다. 이런 로컬푸드는 지역소비자와 인접한 곳에서 지역소비자를 위해, 지역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생산이 이뤄져, 소비자들이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푸드의 폐해로 나타난 식품안전성 위협, 환경피해, 지역공동화, 지역식량보장 위협 등을 막고 안전한 식품의 섭취와 지속가능한 환경의 창출, 가족농, 영농의 지속과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가져오는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윤병선(2007; 2008a; 2008b; 2008c), 허남혁(1999), 김홍주(2004; 2006; 2008) 등에 의해 확장된다.

전반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실천과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출발하고자 하며, 전지구적 의존에서 지역적 의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로컬푸드의 태동은 지역을 떠나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된 '지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의 상정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국내·외를 비롯해 대부분의 연구와 실천은 행정단위의 지역을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컬푸드를 단지 국가 혹은 행정단위의 지역만을 상정할 경우 지역식량체계 내에 들어있는 다층적인 로컬푸드의 면모를 이해하지 못한 채 폐쇄적 지역주의로 전락할 수 있

6) 황달기(2004)를 참조할 것.

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지역먹을거리 관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 다층성을 밝히는 것은 향후 로컬푸드의 개념 및 정의를 설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조사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양적 조사방법이 동원되었는데, 모집단은 제주지역 양대 생협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한살림'과 '아이쿱(iCOOP) 제주생협 조합원 2000여명이다.⁷⁾ 이중 100명의 표본을 상정한 뒤, 다단계 층화 표본추출방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여 각각 한살림 제주생협과 아이쿱 제주생협 조합원 50여명을 추출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방법은 먼저 비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변수들을 추려낸 뒤,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조화된 질문지를 만들었다. 질문지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하나는 로컬푸드에 대한 실천과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이후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훈련된 면접원이 직접 생협 조합원들을 만나 2009년 12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검증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와 교차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표

7) 제주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생협은 1999년에 설립된 아이쿱 제주생협이다. 그 다음으로 생겨난 생협은 한살림 제주생협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제주지역에서는 이 양대 생협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본수가 적어 유의 수준이 다소 낮으나, 제주지역 생협조합원의 5%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조사했기 때문에 제주 생협 조합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경향성을 살펴보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 조사는 조사비용이 다른 연구에 비해 많이 드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 표본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협 조합원들의 경향성을 조사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 조사에 앞선 선행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조사 및 연구대상

연구대상을 표본이라고 했을 때, 조사된 표본은 총 100명으로 한살림 제주생협과 아이쿱 제주생협 회원 2000여 명 중에서 각각 50명씩 1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표본의 성별 비율을 따로 나누어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주지역 생협들의 특성이 먹을거리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부가입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여성이 설문에 응답한 경우가 많아 남성이 18명, 여성이 82명으로 각각 18%와 82%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대별 구성은 20대 3명(3%), 30대 56명(56%), 40대 31명(31%), 50대 10명(10%)이며, 응답자의 최소 나이는 22세이고, 최고 나이는 58세로 평균 나이는 39세이다. 대체로 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령층이 고루게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30-40대가 많은 편이다.

학력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 이하 0%, 고졸 10%, 전문대졸 17%, 대졸 64% 대학원졸 이상 9%로 학력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대체로 생협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학력이 높았다. 이로 대학원 졸업 이상이 많은 것도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은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광역으로 합쳐지면서 북제주군이 제주시에 편입된 원인도 있지만, 대다수의 생협 매장이 제주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대부분 생협 조합원들의 직업이 제주시 지역에 밀집된 2-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응답자의 직업은 주부 38%, 사무종사자 공무원 19%, 전문가 14% 농업·임업·어업·숙련종사자 4%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생협이 주로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입자에 있어서도 주부들이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혼인상태는 응답자 90%가 기혼, 10%가 비(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2천만원 이하 8%, 3천만원 이하 44%, 4천만원 이하 21% 5천만원 이하 13%, 5천만원 이상 14%이며, 응답자의 가족 평균 소득은 4,600여만원으로, 최소 소득은 1천만원, 최대소득은 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8년 전국 도시 가계 평균소득 3,732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응답자의 소득분포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생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명)	비율 (%)	평균	구분	항목	빈도 (명)	비율 (%)	평균		
성별	남	18	18	-	직업	농업어업숙련종사자	4	4	-		
	여	82	82			사무종사자공무원	19	19			
	합계	100	1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1	1			
연령	20대	3	3	39세		가족 소득	주부	38		38	4,600여 만원
	30대	56	56				판매종사자	2		2	
	40대	31	31				전문가	14		14	
	50대	10	10				기능관련종사자	1		1	
	60대 이상	0	0				단순노무종사자	1		1	
	합계	100	1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1		1	
	학력	중졸이하	0				0	대졸 이상		기타	
고졸		10	10	합계	100		100				
전문대졸		17	17	1000만원 이하	0		0				
대졸		64	64	2000만원 이하	8		8				
대학원졸		9	9	3000만원 이하	44	44					
혼인 상태	합계	100	100	-	4000만원 이하	21	21				
	기혼	90	90		5000만원 이하	13	13				
	비(미)혼	10	10		5000만원 이상	14	14				
	기타	0	0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결론적으로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 중 연구대상으로 삼은 100명은 대체로 학력 및 가족 소득이 도시 일반 서민들에 비해 높고 주로 30-40대가 된다. 이는 실제로 생협조합원들의 한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안에서의 학력 및 소득 차이에 따른 변별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인적 배경이나 생협 조합원 내부의 계급과 관련된 변수는 본 연구에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다만 이 집단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집단이 어떤 먹을거리 취향과 특징을 갖는가는 차후 확대된 연

구에서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여겨진다.

Ⅲ. 제주지역 생활협동조합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1. '로컬'에 대한 인식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로컬(local)'이란 용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로컬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 혹은 지역으로 아우르며 사용하고 있는데, 로컬이란 말에는 '지역'이란 범주를 근본 바탕으로 하여 총화된다. 사전적 의미의 로컬은 '공간, 한 지방 특유의, 혹은 지구, 혹은 수도에 대한 지방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로컬의 개념은 총화적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제주 지역 사람들에게 로컬이란 개념은 때에 따라서 서귀포시, 혹은 제주시, 혹은 제주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로컬의 개념은 지역, 계층, 사회적 상황, 학문적 영역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사 응답자의 65%는 '로컬(local)'과 가장 잘 맞는 단어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향토로 15%, 우리 3%, 전통/민속이 3%, 유기농과 원산지로 대답한 경우도 11%나 되었다. 로컬이 지역이라고 대답한 경우 지역의 범주를 제주도로 보는 경우가 72.3%, 대한민국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13.8%, 제주시라고 대답한 경우가 10.8% 등이었다. 이 경우 로컬을 지역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그 지역이 제주도와 대한민국, 혹은 기초 자치행정구역, 광역권 등으로 총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총화되어 있던 지역의 특정 개념이 부상하는 지는 향후 더 연

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먹을거리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라는 지역 범주가 부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향토라고 대답한 경우도 다시 지역과 전통/민속이 각각 46.7%를 차지하고 있어, 로컬이란 개념이 일반적으로 지역이란 개념으로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컬을 우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세부 범주에서도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로컬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 밑바탕에는 제주라는 ‘지역’의 범위가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유기농과 원산지로 대답한 경우들도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에 로컬이란 말이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확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로컬’의 의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로컬’의 의미	비율(%)	범주	비율(%)
향토	15	지역	46.7
		전통민속	46.7
		기타	6.7
		합계	100
지역	65	제주시	10.8
		제주도	72.3
		대한민국	13.8
		기타	3.1
		합계	100
우리	3	거주지공동체	66.7
		제주지역사회	33.3
		합계	100
전통/민속	3	-	-
제철	3	-	-
유기농	7	-	-
원산지	4	-	-

이러한 로컬에 대한 인식의 다양한 층위는 로컬푸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에 대한 인식은 결국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2.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다층화되어 있는 '로컬(local)'에 대한 인식은 '푸드(food)'를 만났을 때 더욱 다층화 되어 나타날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 지역을 제주시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50%가 제주산 먹을거리를, 나머지 50%가 원산지에 따른 먹을거리를 로컬푸드로 인식하였다. 반면 지역을 제주도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11.6%가 국내산 먹을거리를, 30%가 제주산 먹을거리를, 4.7%가 유기농 먹을거리를, 9.3%가 원산지에 따른 먹을거리를 로컬푸드로 대답하여 층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역을 대한민국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62.5%가 국내산 먹을거리를, 12.5%가 제철 먹을거리를, 12.5%가 유기농 먹을거리를 로컬푸드로 대답하였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역을 제주시 혹은 제주도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컬푸드는 제주산 먹을거리라는 인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 지역을 대한민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은 국내산 및 유기농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수록 먹을거리에 대한 지역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로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층위만큼 하나의 로컬 안에서 로컬푸드에 대해 층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로컬푸드를 국내산 먹을거리, 혹은 제주산 먹을거리라는

단순하게 구획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은 층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인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로컬푸드의 층화된 인식이 변화, 이동될 수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3〉 로컬 및 로컬푸드에 드러난 다층화된 인식

‘로컬’지역 응답자	‘로컬푸드’의 의미	비율(%)
제주시	제주산 먹을거리	50
	원산지에 따른 먹을거리	50
	합계	100
제주도	국내산 먹을거리	11.6
	제주산 먹을거리	69.8
	제철 먹을거리	4.7
	유기농 먹을거리	4.7
	원산지에 따른 먹을거리	9.3
	합계	100
대한민국	국내산 먹을거리	62.5
	제철 먹을거리	12.5
	유기농 먹을거리	12.5
	기타	12.5
	합계	100

구분된 식재료를 통해 로컬푸드의 인식을 확인해보면 보다 더 다층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 100명의 생협조합원 응답자들 중 74명인 74%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중 다시 42명인 56.8%가 제주산 먹을거리를 로컬푸드라고 대답했으며, 11명인 14.9%가 국내산 먹을거리를 로컬푸드라고 대답하였다. 그 외 7명(9.5%)

이 원산지에 따른 먹을거리를, 6명(8.1%)이 제철 먹을거리를, 4명(5.4%)이 유기농 먹을거리를, 2명(2.7%)이 전통음식을, 1명(1.4%)이 향토음식점의 음식을 로컬푸드라고 대답하였다.

<표 4> 로컬푸드를 알고 있다는 생협 응답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항목	제주산 먹을거리	국내산 먹을거리	원산지에 따른 먹을거리	제철 먹을거리	유기농 먹을거리	전통 음식	향토 음식점의 음식	기타	합계
비율(%)	56.8	14.9	9.5	8.1	5.4	2.7	1.4	1.4	100

그러나 로컬푸드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74명의 응답자들에게 식재료를 구분지어 물었을 때 <표 5>처럼 전체적으로 곡류, 과실류, 유지류, 해조류 등에 대해서는 국내산을, 나머지 식재료들에 대해서는 제주산을 우선적으로 로컬푸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서류, 채소류, 육류 등 제주가 주산지인 식재료에 대해서는 제주산 식재료를 로컬푸드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유기농 먹을거리를 로컬푸드라고 응답한 수가 많지는 않지만,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제주산, 국내산 다음으로 많고, 원산지 생산이나 제철생산보다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에서 생산방식이 중요한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다.

<표 5> 식재료에 따른 로컬푸드 인식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위	5위
곡류	국내산(59.5%)	제주산(23%)	유기농(13.5%)	원산지(2.7%)	제철(1.4%)
서류	제주산(66.2%)	국내산(18.9%)	유기농(9.5%)	원산지(2.7%)	제철(2.7%)
두류	제주산(47.3%)	국내산(36.5%)	유기농(10.8%)	원산지(2.7%)	제철(1.4%)/기타(1.4%)
종실류	제주산(47.3%)	국내산(35.1%)	유기농(10.8%)	원산지(2.7%)	제철(2.7%)

채소류	제주산(54.1%)	국내산(24.3%)	유기농(8.1%)	제철(8.1%)	원산지(2.7%)/기타(2.7%)
과실류	국내산(44.6%)	제주산(24.3%)	유기농(14.9%)	제철(12.2%)	원산지(4.3%)
육류	제주산(50.0%)	국내산(32.4%)	유기농(14.9%)	원산지(1.4%)	기타(1.4%)
계란류	제주산(54.1%)	국내산(25.7%)	유기농(18.9%)	기타(1.4%)	-
우유류	제주산(39.2%)	국내산(35.1%)	유기농(23.0%)	기타(2.7%)	-
유지류	국내산(51.4%)	제주산(21.6%)	유기농(20.3%)	기타(4.7%)	원산지(2.7%)
어패류	제주산(41.9%)	국내산(37.8%)	원산지(9.5%)	유기농(8.1%)	제철(1.4%)/기타(1.4%)
해조류	국내산(50.0%)	제주산(25.7%)	원산지(12.2%)	유기농(10.8%)	제철(1.4%)

※ 유기농-유기농생산/제철-제철생산/원산지-원산지생산을 의미함.

결국 거시적 수준에서는 제주산 먹을거리와 국내산 먹을거리를 많은 응답자들이 대표적인 로컬푸드로 인식하고 있지만 구분된 식재료에서는 인식의 층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구분된 식재료에서 제주산 및 국내산이란 응답이 많아, 로컬푸드를 국내산 혹은 제주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에 한정해서 구분된 식재료에서는 어떤 것을 로컬푸드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표 6>처럼 ‘로컬푸드는 국내산 먹을거리’를 의미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식재료에 대해서 국내산 먹을거리를 로컬푸드로 인식하는 반면 ‘로컬푸드는 제주산 먹을거리’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제주에서 생산이 다소 낮은 곡류, 과실류, 유지류, 해조류 등을 국내산 먹을거리로 우선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제주산을 우선 선택할지라도 차선으로는 국내산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로컬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제주산을 선호하지만, 현실적인 생산과 유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주산과 국내산 먹을거리 등으로 다층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를 국내산 먹을거리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국내산 먹을거리 다음으로 로컬푸드의 범위에 유기농 생산을 제주산 보다 먼저 선택하는 것은 제주산 먹을거리를 로컬푸드의 범위로 두고 인식하

는 사람들과 비교해 로컬푸드를 인식하는 데 있어 지역 이상의 생산주체, 생산방식 등을 염두에 둔 점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로컬푸드가 단지 지역 먹을거리 이상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6〉 국내산 및 제주산 인식자들의 식재료에 따른 로컬푸드 인식

구분	'로컬푸드=국내산' 응답자		'로컬푸드=제주산' 응답자	
	우선 선택	차선 선택	우선 선택	차선 선택
곡류	국내산(81.8%)	유기농생산(18.2%)	국내산(59.5%)	제주산(33.3%)
서류	제주산(54.5%)	국내산(36.4%)	제주산(83.3%)	국내산(11.9%)
두류	국내산(63.6%)	제주산(18.2%)	제주산(69.0%)	국내산(23.8%)
종실류	국내산(63.6%)	유기농생산(18.2%)	제주산(69.0%)	국내산(26.2%)
채소류	국내산(54.5%)	유기농/제철(18.2%)	제주산(73.8%)	국내산(19.0%)
과실류	국내산(54.5%)	유기농생산(27.3%)	국내산(50.0%)	제주산(31.0%)
육류	국내산(54.5%)	유기농생산(27.3%)	제주산(61.9%)	국내산(26.2%)
계란류	국내산(63.6%)	유기농생산(27.3%)	제주산(73.8%)	국내산(14.3%)
우유류	국내산(45.5%)	제주산/유기농(27.3%)	제주산(50.0%)	국내산(33.3%)
유지류	국내산(54.5%)	유기농생산(27.3%)	국내산(54.8%)	제주산(26.2%)
어패류	국내산(54.5%)	제주산(27.3%)	제주산(50.0%)	국내산(38.1%)
해조류	국내산(72.7%)	유기농생산(18.2%)	국내산(52.4%)	제주산(35.7%)

그렇다면 이러한 로컬푸드에 대한 다층적 인식은 로컬푸드 실천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IV.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푸드의 실천

1. 로컬푸드의 인식과 실천

제주지역 생협 조합원 응답자들 중 로컬푸드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전체 100명 중 74명인데 반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6명이었다. 로컬푸드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 가운데, 66명은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8명은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을 로컬푸드의 인식과 실천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로컬푸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고 실천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며, 두 번째 집단은 로컬푸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세 번째 집단은 로컬푸드를 인식하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다고 여기는 응답자들이다.

이 인식을 달리하는 세 집단의 실천은 어떻게 다른지 식재료 구입과 구입 변수, 구입 장소 등에 대해 우선 선택과 차선 선택을 통해 살펴보았더니, <표 7>에서 처럼 집단별로 식재료 구입에서는 크게 그 경향이 다르지 않았다. 로컬푸드를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식재료에서 국내산과 제주산, 유기농 사용이 혼용되어 있었으며, 로컬푸드를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도 그 안에서 국내산, 제주산, 유기농이 혼용되고 있다. 물론 로컬푸드를 인식하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다고 여기는 집단들도 앞선 집단들과 크게 경향이 다르지 않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협 조합원이란 사실이 일반인들보다 국내산, 제주산, 유기농 식재료를 이용할 확률을 높이고 볼 수 있다.

<표 7> 로컬푸드 인식에 따른 세 집단의 식재료 구입 경향

구분	선택	로컬푸드인식 X 로컬푸드실천 X	로컬푸드인식 O 로컬푸드실천 X	로컬푸드인식 O 로컬푸드실천 O
곡류	우선 선택	국내산(53.8%)	국내산(62.5%)	국내산(59.1%)
	차선 선택	유기농(46.2%)	유기농(37.5%)	유기농(34.8%)
서류	우선 선택	제주산(34.6%)	국내산/제주산/유기농 (25%)	국내산(37.9%)
	차선 선택	국내산/유기농(30.8%)		제주산(31.8%)
두류	우선 선택	국내산(53.8%)	국내산(37.5%)	국내산(53.0%)
	차선 선택	유기농(23.1%)	유기농(25%)	유기농(22.7%)
종실류	우선 선택	국내산(42.3%)	국내산(50.0%)	국내산(47.0%)
	차선 선택	제주산/유기농(23.1%)	유기농(25.0%)	제주산(30.3%)
채소류	우선 선택	국내산(46.2%)	국내산(50.0%)	국내산(37.9%)
	차선 선택	유기농(30.8%)	유기농(37.5%)	유기농(31.8%)
과실류	우선 선택	국내산(53.8%)	국내산/유기농(37.5%)	국내산(45.5%)
	차선 선택	유기농(34.6%)	제주산/제철(12.5%)	유기농(31.8%)
육류	우선 선택	제주산(34.6%)	국내산/제주산(37.5%)	제주산(40.9%)
	차선 선택	국내산/유기농(30.8%)	유기농(25.0%)	국내산(39.4%)
계란류	우선 선택	유기농(38.5%)	국내산(50.0%)	제주산(37.9%)
	차선 선택	제주산(30.8%)	유기농(37.5%)	유기농(28.8%)
우유류	우선 선택	국내산(53.8%)	국내산(87.5%)	국내산(48.5%)
	차선 선택	유기농(30.8%)	유기농(12.5%)	유기농(30.3%)
유지류	우선 선택	국내산(50.0%)	국내산(75.0%)	국내산(65.2%)
	차선 선택	유기농(30.8%)	유기농(25.0%)	유기농(27.3%)
어패류	우선 선택	제주산(42.3%)	국내산(50.0%)	국내산(57.6%)
	차선 선택	국내산(30.8%)	제주산(37.5%)	제주산(31.8%)
해조류	우선 선택	국내산(61.5%)	국내산(75.0%)	국내산(75.8%)
	차선 선택	유기농(26.9%)	제주산/유기농(12.5%)	유기농(15.2%)

※ 유기농-유기농생산/제철-제철생산을 의미함.

식재료 구입의 경향만을 본다면 크게 차별성이 없어 보이나, 구입변수와 구입장소 등을 살펴보면 이 세 집단은 차이를 드러낸다. <표 8>를 보면 우선 로컬푸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생산지’와 ‘생산방식’ 등을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하고 있다면 로컬푸

드를 모르는 사람들의 식재료 구입은 주로 ‘품질’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이는 로컬푸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품질 이상의 생산방식과 생산지에 대해서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로컬푸드 인식에 따른 세 집단의 식재료 구입 변수

구분	선택	로컬푸드인식 X 로컬푸드실천 X	로컬푸드인식 O 로컬푸드실천 X	로컬푸드인식 O 로컬푸드실천 O
곡류	우선 선택	품질(38.5%)	생산방식(37.5%)	생산방식(33.3%)
	차선 선택	생산방식(34.6%)	생산지(25.0%)	생산지(28.8%)
서류	우선 선택	품질(34.6%)	생산지(37.5%)	생산지(39.4%)
	차선 선택	생산지(30.8%)	생산방식(25.0%)	생산방식(28.8%)
두류	우선 선택	생산지(42.3%)	생산지(37.5%)	생산지(42.4%)
	차선 선택	품질(26.9%)	생산방식(25.0%)	생산방식(28.8%)
종실류	우선 선택	생산지(34.6%)	생산방식(37.5%)	생산지(45.5%)
	차선 선택	품질(26.9%)	생산지(25.0%)	생산방식(28.8%)
채소류	우선 선택	품질/생산지(34.6%)	생산방식(37.5%)	생산지/생산방식(31.8%)
	차선 선택	생산방식(22.6%)	품질(25.0%)	품질(24.2%)
과실류	우선 선택	품질(38.5%)	생산방식(37.5%)	생산방식(33.3%)
	차선 선택	생산방식(30.8%)	품질(25.0%)	생산지(31.8%)
육류	우선 선택	생산지(34.6%)	품질/유통/생산방식(25.0%)	생산지/생산방식(34.8%)
	차선 선택	품질(30.8%)	생산지(12.5%)	품질(21.2%)
계란류	우선 선택	생산방식(38.5%)	생산방식(37.5%)	생산방식(42.4%)
	차선 선택	생산지(30.8%)	품질/유통(25.0%)	품질(24.2%)
우유류	우선 선택	생산방식(38.5%)	품질(50.0%)	생산방식(40.9%)
	차선 선택	품질(30.8%)	생산방식(25.0%)	품질(25.8%)
유지류	우선 선택	품질(50.0%)	품질/생산방식(37.5%)	생산방식(37.9%)
	차선 선택	생산방식(23.1%)	가격/유통(12.5%)	품질(22.7%)
어패류	우선 선택	생산지(38.5%)	유통/생산지/생산방식(25.0%)	품질(37.9%)
	차선 선택	품질(34.6%)	가격/품질(12.5%)	생산지(34.8%)
해조류	우선 선택	품질(38.5%)	품질/생산지/생산방식(25.0%)	생산지(39.4%)
	차선 선택	생산지(34.6%)	가격/유통(12.5%)	품질(25.8%)

이들의 이런 구입 변수는 구입 장소에서 확연히 차이를 드러낸다. 로

컬푸드를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유기농매장 이용 쪽으로 경향을 드러낸다면 로컬푸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마트 쪽으로 가우는 경향을 보여준다. 같은 유기농매장을 이용하더라도 로컬푸드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들 사이의 비율이 다르고 로컬푸드를 인식하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20% 가량이 식재료 일부를 대형마트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는 물론 유기농매장 등에서 모든 식재료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9> 참조).

<표 9> 로컬푸드 인식에 따른 세 집단의 식재료 구입 장소

구분	선택	로컬푸드인식 X 로컬푸드실천 X	로컬푸드인식 O 로컬푸드실천 X	로컬푸드인식 O 로컬푸드실천 O
곡류	우선 선택	유기농매장(34.6%)	유기농매장(62.5%)	유기농매장(62.1%)
	차선 선택	대형마트(30.8%)	대형마트(25%)	대형마트(22.7%)
서류	우선 선택	유기농매장(38.5%)	유기농매장(50%)	유기농매장(50.0%)
	차선 선택	대형마트(30.8%)	대형마트(50%)	대형마트(24.2%)
두류	우선 선택	유기농매장(42.3%)	유기농매장(50%)	유기농매장(47.0%)
	차선 선택	대형마트(26.9%)	재래시장(25%)	대형마트(19.7%)
종실류	우선 선택	가족친지(38.5%)	유기농매장(37.5%)	유기농매장(48.5%)
	차선 선택	유기농매장(30.8%)	재래시장(25%)	가족친지(22.7%)
채소류	우선 선택	유기농매장(46.2%)	유기농매장(37.5%)	유기농매장(47.0%)
	차선 선택	대형마트(26.9%)	대형마트(37.5%)	대형마트(19.7%)
과실류	우선 선택	대형마트(46.2%)	유기농매장(25%) 재래시장(25%)	유기농매장(45.5%)
	차선 선택	유기농매장(42.3%)	대형마트(25%)	대형마트(27.3%)
육류	우선 선택	유기농매장(30.8%)	유기농매장(50%)	유기농매장(42.4%)
	차선 선택	대형마트(30.8%)	근처슈퍼(25%)	대형마트(31.8%)
계란류	우선 선택	대형마트(46.2%)	유기농매장(62.5%)	유기농매장(60.6%)
	차선 선택	유기농매장(42.3%)	대형마트(25%)	대형마트(28.8%)

우유류	우선 선택	대형마트(46.2%)	유기농매장(37.5%)	유기농매장(47.0%)
	차선 선택	유기농매장(30.8%)	대형마트(37.5%)	대형마트(31.8%)
유지류	우선 선택	대형마트(53.8%)	대형마트(50%)	유기농매장(48.5%)
	차선 선택	유기농매장(34.6%)	유기농매장(37.5%)	대형마트(43.9%)
어패류	우선 선택	재래시장(34.6%)	재래시장(50%)	재래시장(31.8%)
	차선 선택	대형마트(26.9%)	유기농매장(25%)	대형마트(25.8%)
해조류	우선 선택	대형마트(42.3%)	유기농매장(37.5%)	유기농매장(52.3%)
	차선 선택	유기농매장(34.6%)	대형마트(37.5%)	대형마트(26.2%)

2. 로컬푸드 실천자들의 구입 경향

로컬푸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74명 중에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66명으로, 로컬푸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89.2%였다. 이들은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48.5%) 얻거나, 구입처의 홍보(30.3%), 신문방송잡지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16.7%) 주로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협 조합원들이 먹을 거리 위기 후 스스로 찾아 나서거나 생협 매장 등의 홍보를 통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있다는 66명의 식재료 구입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대체로 국내산을 구입하여 섭취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산과 유기농 생산 방식을 통해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하는 양상이 혼전되어 있다. 그러나 곡류, 두류, 유지, 어패류를 제외하면 국내산, 유기농, 제주산 등이 혼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철 생산이 유기농 생산 등의 생산방식에 비해 저조한 것은 주목할 만한 하다.

<표 10> 로컬푸드 실천자들의 식재료 구입 경향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곡류	국내산(59.1%)	유기농(34.8%)	제주산(4.5%)	제철생산(1.5%)	-
서류	국내산(37.9%)	제주산(31.8%)	유기농(25.8%)	제철생산(3.0%)	기타(1.5%)
두류	국내산(53.0%)	유기농(22.7%)	제주산(18.2%)	기타(4.5%)	제철생산(1.5%)
종실류	국내산(47.0%)	제주산(30.3%)	유기농(19.7%)	제철생산(1.5%)	기타(1.5%)
채소류	국내산(37.9%)	유기농(31.8%)	제주산(27.3%)	제철생산(3.0%)	-
과실류	국내산(45.5%)	유기농(31.8%)	제주산(10.6%)	제철생산(10.6%)	기타(1.5%)
육류	국내산(39.4%)	제주산(40.9%)	유기농(16.7%)	기타(3.0%)	-
계란류	제주산(37.9%)	유기농(31.8%)	국내산(28.8%)	제철생산(1.5%)	-
우유류	국내산(48.5%)	유기농(30.3%)	제주산(16.7%)	기타(4.5%)	-
유지류	국내산(65.2%)	유기농(27.3%)	기타(4.5%)	해외산(3.0%)	-
어패류	국내산(57.6%)	제주산(31.8%)	유기농(9.1%)	제철생산(1.5%)	-
해조류	국내산(75.8%)	유기농(15.2%)	제주산(7.6%)	제철생산(1.5%)	-

※ 유기농-유기농 생산을 의미함.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식재료 구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는 <표 11>과 같이 생산방식과 생산지, 품질 등이었다. 특히 생산지와 생산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먹을거리 사고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생산지와 생산방식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은 생협조합원들의 소득 수준이 도시 가족 평균 소득보다 웃도는 경향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이들이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합원이라는 의식적인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입 장소에서도 드러난다.

〈표 11〉 로컬푸드 실천자들의 식재료 구입 변수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곡류	생산방식(33.3%)	생산지(28.8%)	품질(24.2%)	유통및판매처(9.1%)	가격(4.5%)
서류	생산지(39.4%)	생산방식(28.8%)	품질(19.7%)	유통및판매처(7.6%)	가격(4.5%)
두류	생산지(42.4%)	생산방식(28.8%)	품질(16.7%)	유통및판매처(6.1%)	가격(4.5%)
종실류	생산지(45.4%)	생산방식(28.8%)	품질(13.6%)	유통및판매처(7.6%)	가격(3.0%)
채소류	생산지(31.8%)	생산방식(31.8%)	품질(24.2%)	유통및판매처(7.6%)	가격(3.0%)
과실류	생산방식(33.3%)	생산지(31.8%)	품질(22.7%)	유통및판매처(9.1%)	가격(3.0%)
육류	생산지(34.8%)	생산방식(34.8%)	품질(21.2%)	유통및판매처(7.6%)	가격(1.5%)
계란류	생산방식(42.4%)	품질(24.2%)	생산지(22.7%)	유통및판매처(7.6%)	가격(3.0%)
우유류	생산방식(40.9%)	품질(25.8%)	생산지(16.7%)	유통및판매처(12.1%)	가격(3.0%)
유지류	생산방식(37.9%)	품질(22.7%)	생산지(18.2%)	유통및판매처(15.2%)	가격(4.5%)
어패류	품질(37.9%)	생산지(34.8%)	생산방식(19.7%)	유통및판매처(6.1%)	가격(1.5%)
해조류	생산지(39.4%)	품질(25.8%)	생산방식(24.2%)	유통및판매처(9.1%)	가격(1.5%)

로컬푸드를 섭취하고 있다는 66명 응답자 대다수들은 <표 12>에서처럼 절반의 식재료를 유기농매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대형마트를 이용하거나 가족·친지 등을 활용하는 측면들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육류, 어패류와 같은 식재료 등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있다는 이들이 전체적으로는 유기농매장 다음으로 이용하는 장소는 주로 대형마트라는 점이다. 이는 재래시장이나 농민장터에 비해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2〉로컬푸드 실천자들의 식재료 구입 장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위	5위
곡류	유기농매장(62.1%)	대형마트(22.7%)	가족친지(6.1%)	근처슈퍼(4.5%)	재래시장(1.5%)
서류	유기농매장(50.0%)	대형마트(24.2%)	가족친지(15.2%)	농민장터(4.5%)	근처슈퍼(3.0%)
두류	유기농매장(47.0%)	대형마트(19.7%)	가족친지(16.7%)	농민장터(4.5%)	텃밭자영(4.5%)

종실류	유기농매장(48.5%)	가족친지(22.7%)	농민장터(6.1%)	재래시장(3.0%)	텃밭자영(3.0%)
채소류	유기농매장(47.0%)	대형마트(19.7%)	가족친지(16.7%)	재래시장(7.6%)	텃밭자영(3.0%)
과실류	유기농매장(45.5%)	대형마트(27.3%)	가족친지(15.2%)	텃밭자영(1.5%)	재래시장(3.0%)
육류	유기농매장(42.4%)	대형마트(31.8%)	재래시장(6.1%)	가족친지(6.1%)	기타(6.1%)
계란류	유기농매장(60.6%)	대형마트(28.8%)	근처슈퍼(6.1%)	농민장터(3.0%)	텃밭자영(1.5%)
우유류	유기농매장(47.0%)	대형마트(31.8%)	근처슈퍼(15.2%)	기타(6.1%)	-
유지류	유기농매장(48.5%)	대형마트(43.9%)	근처슈퍼(1.5%)	가족친지(1.5%)	기타(1.5%)
어패류	재래시장(31.8%)	대형마트(25.8%)	유기농매장(25.8%)	가족친지(7.6%)	기타(4.5%)
해조류	유기농매장(52.3%)	대형마트(26.2%)	재래시장(10.8%)	근처슈퍼(4.6%)	기타(3.1%)

그렇다면 각 식재료에서 국내산 혹은 제주산을 로컬푸드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국내산 곡류를 로컬푸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 식재료 구입에서는 어떤 것을 구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무엇인가?

분석 결과 <표 13>처럼 식재료별 로컬푸드를 국내산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대체로 로컬푸드를 섭취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국내산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곡류와 계란류에 대한 국내산 선택 비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유기농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차선 선택에서 종실류, 육류, 어패류 등을 제외하면 제주산이 아닌 유기농 생산을 차선으로 선택하고 있다. 선택요인에서 생산지가 주요 선택 요인이 되고 있지만 구입 장소에서 곡류, 두류, 종실류 등이 유기농매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육류, 계란류, 우유류, 유지류 등이 유기농매장에 비해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식재료의 질 문제인지, 유기농매장의 접근성 문제인지 차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방식에 우선권을 두는 유기농 생산 선호자들의 경우 유기농 식재료라면 유

기능매장이나 대형마트나 구별 없이 구입하는가도 더불어 조사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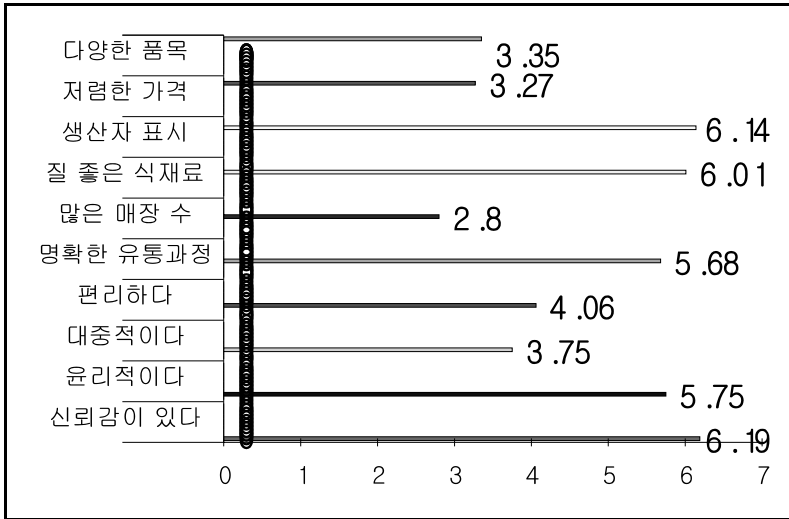
다만 유기농매장과 관련된 문제라면 다음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도표 1>은 유기농매장의 이미지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조사한 것인데, 유기농매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식재료에 대한 생산자 표시나, 질 좋은 식재료 공급, 명확한 유통과정, 윤리적 측면 등은 높은 신뢰감을 보인 반면 제한된 품목, 비싼 가격, 적은 매장 수, 대중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인식이 실천과정까지 도달하는데 부족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3> 식재료별 로컬푸드를 ‘국내산’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의 실천

구분	우선 선택	차선 선택	주요 선택요인	우선 구입장소	차선 구입장소
곡류	국내산(29.0%)	유기농(27.5%)	생산지	유기농매장(51.3%)	대형마트(30.8%)
서류	국내산(75.0%)	유기농(16.7%)	생산지	대형마트(44.0%)	유기농매장(40.0%)
두류	국내산(73.9%)	유기농(13.0%)	생산지	유기농매장(40.0%)	대형마트(22.9%)
종실류	국내산(72.7%)	제주산(13.6%)	생산지	유기농매장(51.6%)	대형마트(19.4%)
채소류	국내산(70.6%)	유기농(23.5%)	생산지	유기농매장(36.0%)	대형마트(28.0%)
과실류	국내산(61.3%)	유기농(25.8%)	생산지	대형마트(50.0%)	유기농매장(26.7%)
육류	국내산(56.5%)	제주산(30.4%)	생산지	대형마트(46.2%)	유기농매장(26.9%)
계란류	국내산(44.4%)	유기농(33.3%)	품질	대형마트(52.6%)	유기농매장(31.6%)
우유류	국내산(72.0%)	유기농(16.0%)	생산지	대형마트(43.8%)	유기농매장(31.3%)
유지류	국내산(74.3%)	유기농(14.3%)	품질	대형마트(48.8%)	유기농매장(41.9%)
어패류	국내산(76.9%)	제주산(15.4%)	품질	채래시장(34.2%)	유기농매장(26.3%)
해조류	국내산(86.1%)	유기농(11.1%)	생산지	유기농매장(46.0%)	대형마트(32.0%)

※ 유기농-유기농생산을 의미함.

〈도표 1〉 유기농매장에 대한 이미지



식재료별 로컬푸드를 제주산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들은 <표 14>에서 보듯, 국내산이라고 인식한 사람들과 다르게 서류, 종실류, 채소류, 육류, 계란류, 어패류 등을 제주산으로 우선 선택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국내산을 우선 선택하고 있다. 제주산을 이용하는 경우는 생산지를, 국내산을 이용하는 경우는 품질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주산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응답자들은 현실적 여건이 가능하다면 제주산을 이용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입장소에서도 대형마트 이용을 극히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재래시장, 가족친지 등을 활용한다. 로컬푸드를 국내산 혹은 유기농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과의 다른 행보다.

〈표 14〉 식재료별 로컬푸드를 ‘제주산’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의 실천⁸⁾

구분	우선 선택	차선 선택	주요 선택요인	우선 구입장소	차선 구입장소
곡류	국내산(53.3%)	유기농(26.7%)	품질	유기농매장(66.7%)	가족친지(33.3%)
서류	제주산(40.4%)	국내산(34.0%)	생산지	유기농매장(38.1%)	가족친지(23.8%)
두류	국내산(46.9%)	제주산(28.1%)	생산지	대형마트(33.3%)	유기농매장/가족친지 (25.0%)
종실류	제주산(45.5%)	국내산(36.4%)	생산지	가족친지(45.0%)	유기농매장(25.0%)
채소류	제주산(38.9%)	국내산(30.6%)	생산지	가족친지(33.3%)	유기농매장(22.2%)
과실류	국내산(50.0%)	유기농(25.0%)	생산지	유기농매장(42.9%)	가족친지(42.9%)
육류	제주산(48.4%)	국내산(35.5%)	생산지	유기농매장(40.7%)	대형마트(29.6%)
계란류	제주산(48.6%)	국내산(25.7%)	생산지	유기농매장(56.0%)	대형마트(28.0%)
우유류	국내산(42.3%)	제주산(30.8%)	품질	유기농매장(36.4%)	대형마트(36.4%)
유지류	국내산(78.6%)	유기농(21.4%)	-	-	-
어패류	제주산(50.0%)	국내산(46.4%)	생산지	대형마트(38.1%)	재래시장(33.3%)
해조류	국내산(82.4%)	제주산(11.8%)	생산지/품질	유기농매장(40.0%)	재래시장(20.0%) 등

※ 유기농-유기농생산을 의미함.

유기농생산물을 로컬푸드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보다 명확한 경향을 보여준다. 식재료에서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고, 생산방식을 고려한다. 또한 높은 비율로 유기농 매장을 이용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유기농 시장이 한국사회에 형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면서 제주지역 생협 조합원들 중 로컬푸드 실천자들 내부에서도 뚜렷한 취향의 집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차분석의 결과를 보면 더욱 확실하다. 식재료별로 로컬푸드를 국내산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국내산과 유기농으로 유연하게 구입을 연동시키는 반면 제주산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먼저 제주산을 그리고 나서 국내산과 유기농을 연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유기농이라고

8) 표 안의 - 표시 부분은 유의수준이 너무 낮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응답한 사람들은 유기농 구입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야 국내산이나 제주산을 연동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기농생산이 로컬푸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배타적 소비방식을 선택할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15〉 식재료별 로컬푸드를 '유기농 생산물'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의 실천⁹⁾

구분	우선 선택	차선 선택	주요 선택요인	우선 구입장소	차선 구입장소
곡류	유기농(77.8%)	국내/제주산(11.1%)	생산방식	유기농매장(82.6%)	대형마트(8.7%)
서류	유기농(83.3%)	제주산(16.7%)	생산방식	유기농매장(88.2%)	대형마트/가족친지(5.9%)
두류	유기농(57.1%)	국내/제주산(14.3%)	생산방식	유기농매장(86.7%)	대형마트/가족친지(6.7%)
종실류	유기농(57.1%)	제주산(28.6%)	생산방식	유기농매장(84.6%)	대형마트/가족친지(7.7%)
채소류	유기농(83.3%)	제주산(16.7%)	생산방식	유기농매장(85.7%)	대형마트(9.5%)
과실류	유기농(70.0%)	국내산/제주산/계절 생산 (10.0%)	생산방식	유기농매장(85.7%)	대형마트/가족친지(4.8%)
육류	유기농(50.0%)	제주산(40.0%)	생산방식	유기농매장(81.8%)	대형마트(9.1%)
계란류	유기농(58.3%)	제주산(33.3%)	생산방식	유기농매장(90.5%)	대형마트(9.5%)
우유류	유기농(71.4%)	국내산(14.3%)	생산방식	유기농매장(80.0%)	대형마트(15.0%)
유지류	유기농(69.2%)	국내산(23.1%)	생산방식	유기농매장(72.2%)	대형마트(27.8%)
어패류	유기농(50.0%)	제주산(33.3%)	생산방식	-	-
해조류	유기농(50.0%)	제주산(25.0%)	생산방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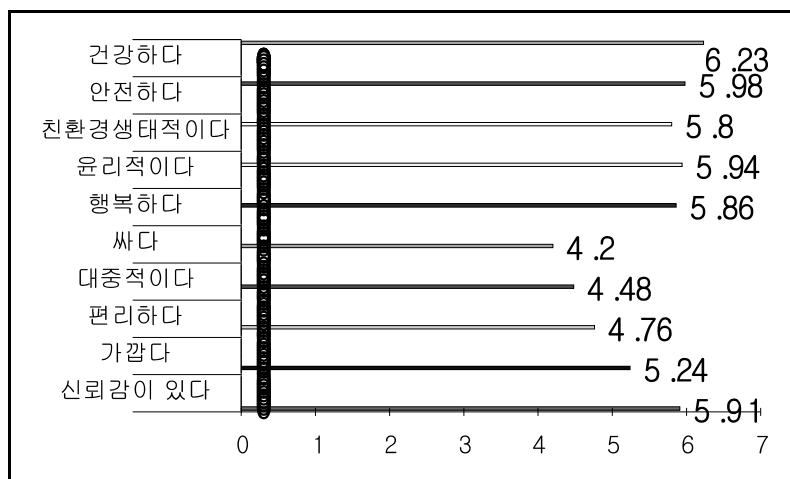
※ 유기농-유기농 생산을 의미함.

결과를 종합해보면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실천의 양상이나 경향성이 상당히 다르고 현재 제주사회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다층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로컬푸드에 대한 이미지

이제 응답자들이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 중 로컬푸드를 섭취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로컬푸드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로컬푸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으로 10개의 상대 항목을 주고 7점 만점을 척도로 질문한 결과 <도표 2>처럼 대부분 로컬푸드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과 편리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도표 2> 로컬푸드에 대한 느낌



로컬푸드를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에게 로컬푸드를 이용하면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서 <표 16>처럼 54.5%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드러냈으며, 그 다음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16.7%, 지역공동체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12.1%

를 드러냄으로써 로컬푸드가 안전한 먹을거리 다음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식량주권 수호가 10.6%, 식재료 유통구조의 개선이 4.5%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재구조화와 관련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제주산을 이용하는가 하면 그 이용율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17>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식재료 구입에서 로컬푸드 실천 이유와 상관없이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로컬푸드를 제주산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제주산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드러냈지만, 역으로 로컬푸드 실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제주산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적었다. 이것은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먹을거리 안전성 이상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제로 도약하고 있지 못한 징후라 볼 수 있다.

<표 16> 로컬푸드를 이용하면 좋은 점

항목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식재료 유통구조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재구조화	식량주권 수호	기타	합
비율(%)	54	4.5	16.7	12.1	10.6	1.5	100

<표 17> 지역사회활성화와 제주산 구입 여부

구분	선택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식재료유통 구조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재구조화	식량주권
곡류	우선	국내산(63.9%)	국내산(100%)	국내산(54.5%)	유기농(62.5%)	국내산(71.4%)
	차선	유기농(30.6%)	-	유기농(36.4%)	국내산(25.0%)	유기농(28.6%)
서류	우선	국내산(44.4%)	제주산(66.7%)	국내산/유기농(36.4%)	제주산(50.0%)	국내산(42.9%)
	차선	유기농(19.4%)	국내산(33.3%)	제주산(27.3%)	유기농(37.5%)	제주산/유기농(28.6%)
두류	우선	국내산(55.6%)	제주산(66.7%)	국내산(72.7%)	국내산/유기농(37.5%)	국내산(42.9%)
	차선	유기농(19.4%)	국내산(33.3%)	유기농(18.2%)	제주산(12.5%)	제주산/유기농(28.6%)

종실류	우선	국내산(52.8%)	국내산(66.7%)	국내산(54.5%)	국내산/제주산(37.5%)	제주산(71.4%)
	차선	제주산(25.0%)	제주산(33.3%)	유기농(27.3%)	유기농(25.0%)	국내산/유기농(14.3%)
채소류	우선	국내산/제주산(33.3%)	국내산(66.7%)	국내산(54.5%)	유기농(50.0%)	국내산(42.9%)
	차선	유기농(27.8%)	제주산(33.3%)	유기농(36.4%)	국내산/제주산(25.0%)	제주산/유기농(28.6%)
과실류	우선	국내산(41.7%)	국내산(100%)	국내산(54.5%)	제철/유기농(37.5%)	국내산(57.1%)
	차선	유기농(30.6%)	-	유기농(36.4%)	국내산(25.0%)	유기농(28.6%)
육류	우선	국내산(41.7%)	국내산(66.7%)	제주산(45.5%)	국내산/제주산(37.5%)	제주산(71.4%)
	차선	제주산(36.1%)	제주산(33.3%)	국내산(36.4%)	유기농(25.0%)	국내산(28.6%)
계란류	우선	제주산(36.1%)	국내산(66.7%)	제주산/유기농(36.4%)	유기농(37.5%)	제주산(71.4%)
	차선	유기농(33.3%)	제주산(33.3%)	국내산(27.3%)	국내산/제주산(25.0%)	국내산/유기농(14.3%)
우유류	우선	국내산(38.9%)	국내산(100%)	국내산(63.6%)	국내산(50.0%)	국내산(57.1%)
	차선	유기농(30.6%)	-	유기농(27.3%)	유기농(37.5%)	유기농(28.6%)
유지류	우선	국내산(66.7%)	국내산(100%)	국내산(54.5%)	국내산(50.0%)	국내산(85.7%)
	차선	유기농(30.6%)	-	유기농(18.2%)	유기농(37.5%)	유기농(14.3%)
어패류	우선	국내산(50.0%)	국내산(66.7%)	국내산(54.5%)	국내산(75.0%)	국내산(85.7%)
	차선	제주산(38.9%)	제주산(33.3%)	제주산(36.4%)	제주산/유기농(12.5%)	제주산(14.3%)
해조류	우선	국내산(72.2%)	국내산(100%)	국내산(81.8%)	국내산(87.5%)	국내산(71.4%)
	차선	제주산(13.9%)	-	제주산(9.1%)	유기농(12.5%)	유기농(28.6%)

※ 유기농-유기농생산을 의미함.

현재의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가 68.2%나 대답을 해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이유와 일치하였다(<표 18> 참조). 그 다음이 세계화에 대한 식량주권 및 지역식량체계 형성으로 24.2%였다. 따라서 로컬푸드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화로 인한 먹을거리 위기 및 안전성의 문제로 불거진 지역식량체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식재료 구입 형태에서 제주산 및 국내산, 유기농생산을 로컬푸드로 생각하며, 여건상 주로 국내산 구입에 주력하면서도 국내산-유기농생산-제주산이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표 19> 참조).

〈표 18〉 먹을거리 관련 중요 문제

항목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	식량주권 및 지역식량체계형성	지역사회 재활성화문제	지구환경 문제	합
비율(%)	68.2	24.2	4.5	3.0	100

〈표 19〉 먹을거리 관련 중요 문제와 식재료 구입 여부

구분	선택	먹을거리 안전성문제	식량주권 및 지역식량체계형성	지역사회 재활성화문제	지구환경문제
곡류	우선	국내산(62.2%)	국내산(62.5%)	국내산/제주산/유기농(33.3%)	유기농(100%)
	차선	유기농(35.6%)	유기농(25.0%)	-	-
서류	우선	국내산(42.2%)	국내산/제주산(37.5%)	국내산(100%)	유기농(100%)
	차선	유기농(26.7%)	유기농(18.8%)	-	-
두류	우선	국내산(53.3%)	국내산(62.5%)	제주산(66.7%)	유기농(100%)
	차선	유기농(24.4%)	제주산(18.8%)	국내산(33.3%)	-
종실류	우선	국내산(51.1%)	국내산(50.0%)	제주산(100%)	유기농(100%)
	차선	제주산(26.7%)	제주산(31.3%)	-	-
채소류	우선	국내산(35.6%)	국내산(50.0%)	제주산(66.7%)	유기농(100%)
	차선	유기농(33.3%)	유기농(25.0%)	국내산(33.3%)	-
과실류	우선	국내산(40.0%)	국내산(68.8%)	국내산/제주산/유기농(33.3%)	제철/유기농(50.0%)
	차선	유기농(35.6%)	유기농(18.8%)	-	-
육류	우선	국내산/제주산(40.0%)	국내산(50.0%)	제주산(100%)	유기농(100%)
	차선	유기농(15.6%)	제주산(37.5%)	-	-
계란류	우선	유기농(37.8%)	제주산(50.0%)	제주산(100%)	유기농(100%)
	차선	제주산(31.1%)	국내산(37.5%)	-	-
우유류	우선	국내산(44.4%)	국내산(68.8%)	제주산(66.7%)	유기농(100%)
	차선	유기농(33.3%)	유기농(18.8%)	국내산(33.3%)	-
유지류	우선	국내산(60.0%)	국내산(81.3%)	국내산(100%)	유기농(100%)
	차선	유기농(31.1%)	유기농(12.5%)	-	-
어패류	우선	국내산(51.1%)	국내산(87.5%)	제주산(66.7%)	유기농(100%)
	차선	제주산(37.8%)	제주산(12.5%)	국내산(33.3%)	-
해조류	우선	국내산(77.8%)	국내산(81.3%)	국내산(66.7%)	유기농(100%)
	차선	유기농(13.3%)	유기농(12.5%)	제주산(33.3%)	-

*유기농-유기농생산/제철-제철생산을 의미함.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천 이유와 현재 중요한 먹을거리 문제를 교차시켜 살펴보면, <표 20>에서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먹을거리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를 꼽고 있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식량주권을 로컬푸드 실천 이유로 꼽은 사람들은 식량주권 및 지역식량체계 형성을 먹을거리 중요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결과만을 보았을 때 현재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와 식량주권문제에 주로 머물러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20> 로컬푸드 실천 이유와 먹을거리 관련 중요 문제

구분		먹을거리 안전성문제	식량주권 및 지역식량체계형성	지역사회재 활성화	지구 환경문제	합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빈도	33	2	1	0	36
	열%	91.7	5.6	2.8	0	100
	행%	73.3	12.5	33.3	0	54.5
식재료 유통구조의 개선	빈도	2	1	0	0	3
	열%	66.7	33.3	0	0	100
	행%	4.4	6.3	0	0	4.5
지역경제 활성화	빈도	4	5	1	1	11
	열%	36.4	45.5	9.1	9.1	100
	행%	8.9	31.3	33.3	50.0	16.7
지역공동체재구 조화	빈도	3	3	1	1	8
	열%	37.5	37.5	12.5	12.5	100
	행%	6.7	18.8	33.3	50.0	12.1
식량주권	빈도	2	5	0	0	7
	열%	28.6	71.4	0	0	100
	행%	4.4	31.3	0	0	10.6
기타	빈도	1	0	0	0	1
	열%	100	0	0	0	100
	행%	2.2	0	0	0	1.5
합	빈도	45	16	3	2	66
	열%	68.2	24.2	4.5	3.0	100
	행%	100	100	100	100	100

V. 결론

로컬푸드의 실천에 대한 확산은 분명히 주목해야 할 만한 현상이다. 현재 로컬푸드의 실천은 식재료를 구입하는 상황을 넘어서 사회적 기업, 마을 만들기, 공동체 복원, 지역통화(화폐)실현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지역이란 하나의 시공간적 매개물이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혹은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하지 않고 로컬푸드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단위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염두에 두는 오류는 재고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실제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인식이 생협조합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인식은 로컬푸드, 즉 지역먹을거리라고 하는 범주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층적인 지역 인식 중 '제주도'라는 지역 인식이 가장 부상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로컬푸드는 유기농생산이란 분명한 인식을 보여주는 응답자들에게 지역은 생산방식의 일환으로 전환될 뿐이다. 따라서 지역이란 것을 으레 상식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은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제주지역 생협 조합원들 중 로컬푸드의 실천자들 사이에는 로컬에 대한 다층화된 인식만큼이나 다층화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로컬푸드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가 지니고 있는 다층적 면모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로컬푸드에 대한 실제적이고 바람직한 개념이나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로컬푸드 연구에서는 이런 로컬 및 로컬푸드에 대한 다층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종덕, 2007, 「지역식량체계 농업회생방안과 과제」,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7권 1호, p. 5-32.
- _____, 2008, 「우리나라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제9권 제2호, p. 85-113.
- 김홍주, 2004, 「슬로푸드운동과 대안식품체계의 모색」,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4집 1호.
- _____, 2006, 「생협 생산자의 존재형태와 대안농산물체계의 모색-두레 생협생산자회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제16집, p. 95-141.
- _____, 2008, 「생협운동과 지역먹거리체계: 풀무생협 사례연구」, 2008년도 한국환경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먹을거리의 환경사회학』.
- 박덕병, 2005, 「미국의 Local Food System과 공동체 지원농업(CSA)의 현황과 전망: 미네소타주 무어헤드시의 올드 트레일 마켓(Old Trail Market)의 사례 연구」,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5집 1호, p. 133-173.
- 윤병선, 2007, 「일본 지산지소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 _____, 2008, 「로컬푸드 관점에서 본 농산가공산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제21권 2호, p. 501-522.
- _____, 2008, 「세계적 식량위기의 원인과 식량주권」, 『녹색평론』통권 100호, 녹색평론사.
- _____, 2008, 「식품체계에서 로컬푸드 운동의 의의」, 2008년 한국환경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먹을거리의 환경사회학』.
- 윤형근, 2009, 「로컬푸드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재구성」,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제주지역 로컬푸드 아카데미(2009년 5월-6월)』.
- 허남혁, 1999,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및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담론 분석: 국내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현혜경, 2009,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전망」,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제35호, p. 107-140.
- 홍경완, 김지영, 김양숙, 2009, 「로컬푸드의 개념적 이해 연구」, 『대한영양학회지』,

22(3), p. 1629-1649.

- 황달기, 2004, 『일본 농촌사회의 전통적 사회시스템의 붕괴와 재편: 촌락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4집 2호, 한국농촌사회학회, p. 207-244.
- Halweil, B., 2004, *Eat Here.*(김종덕 외, 2006, 『로컬푸드: 먹거리-농업-환경, 공존의 미학』, 시울.)
- Ife, J., 2002, *Community Development.*(류혜정, 2005, 『지역사회개발』, 인간과 복지.)
- Sharp, J. and Imerman, E., and G. Peters. 2002,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CSA): Building Community Among Farmers and Non-Farmers*”, *Journal of Extension* 40(3).
- Welsh, R., 1997, “*Reorganizing U.S. Agriculture*”, Policy Studies Report No 7. Greenbelt, Maryland: Henry A. Wallace Institute for Alternative Agriculture.

Abstract

The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the local food in members of
cooperatives of Jeju area

Hyun, Hye-Kyung*

The practice and research of the local food is spreading while increasing interest in local food. This practice of the local food to resolve the problems—the local economy, the rebuilding of communities, food sovereignty and global environment etc.

However, many discussions about the concept of local food is lacking. Depending on how recognize the local, especially the local food can be deployed in various forms of practice. This study to examine the perception and practice as to local and local food.

This study has been made in survey methods,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a variety of layers in recognition and practice for local and local food could see the co-existence. From now on, it seems to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the actual concept of local food.

Key Words

local food, Cooperative(COOP), Jeju, Ingredient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교신 : 현혜경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BK21 연구실

(E-mai : syaron@hanmail.net 전화 : 062-530-0126 / 019-698-0973)

논문투고일 2010. 01. 19.

심사완료일 2010. 02. 15.

게재확정일 2010. 02. 16.